

# IMD의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 1. 한국의 국가경쟁력

○ 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이 5월 17일 최종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997년 현재 46개 평가대상국중 30위로서 지난해 (27위)보다 3단계 낮아졌음.

\* 스위스 로잔에 소재한 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management training program*의 제공을 주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 IMD는 지난 1980년 이후 세계경제포럼 (WEF : *World Economic Forum*)과 공동으로 세계경쟁력보고서를 발표하여 왔으나 IMD의 경쟁력에 대한 정의가 다소 피상적이라는 문제점과 조사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1996년부터는 서로 별도로 발표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3월 24일의 중간평가보다 1단계 상승하였는데, 이는 국가경쟁력과 관련한 총 8개의 평가항목 중 지난 3월의 중간발표에 비해 국제화부문 (40 → 45위)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반전하고 국내경제력부문 (11 → 13위)이 더욱 하락하였으나, 정부부문 (36 → 32위)이 상승으로 반전하고 인적자원부문 (24 → 22위)의 하락폭이 둔화된 데 기인.

## 2. 하락요인 분석

○ 국내경제력부문은 1996년의 경우 경기연착륙 전망 등으로 인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금년에는 경기하강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하여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낮아지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frac{95년}{7위} \rightarrow \frac{96년}{4위} \rightarrow \frac{97년}{13위}$  )

- 동 부문에는 GDP성장률, 산업생산 증가율 등 경기동향 관련 통계지표와 함께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전망 등이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최근의 경제성과에 의해 영향을 받음.

\* 평가결과가 최근 경제성과에 크게 영향을 받음에 따라 일본 및 대만이 최근 경기회복 지연으로 각각 5위에서 6위로, 11위에서 17위로 하락한 반면 영국은 건실한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전년의 21위에서 19위로 상승

○ 또한 인적자원부문은 최근 실업률 상승 등으로 전년도보다 소폭하락

(  $\frac{95년}{21위} \rightarrow \frac{96년}{21위} \rightarrow \frac{97년}{22위}$  )

우리나라의 부문별 국가경쟁력 추이<sup>1)</sup>

	1994	1995	1996	97	
				A	B
국내경제력 (Domestic Economy)	9	7	4	11	13
정부 (Government)	35	18	33	36	32
금융 (Finance)	42	37	40	43	43
인적자원 (People)	23	21	21	24	22
사회간접자본 (Infrastructure)	36	35	34	36	34
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	44	40	43	40	45
기업경영 (Management)	37	27	28	26	26
과학 & 기술 (Science & Technology)	24	24	25	20	22
종합 (Total)	32	26	27	31	30

주 : 1) A : 3월 24일 중간발표시의 수치

2) B : 5월 17일 최종발표시의 수치

※ 독일의 경우 최근들어 실업률이 전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지속됨에 따라 인적자원 부문의 순위가 전년의 12위에서 18위로 하락.

○ 한편 금융부문의 경우 금융개혁의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1996년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

$$\left( \frac{95\text{년}}{37\text{위}} \rightarrow \frac{96\text{년}}{40\text{위}} \rightarrow \frac{97\text{년}}{43\text{위}} \right)$$

- 동 부문은 주관적 의견을 묻는 평가항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한보사태 등으로 국내금융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기업경영인들의 설문조사 평가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국제화부문도 하락세를 지속 (40 → 43 → 45위)하여 조사대상국 46개국 중 남아프리카 공

화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45위를 기록

### 3. 평가

○ 이번 IMD의 세계경쟁력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중 전년에 비해 6단계나 상승하였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이후 2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장친화적인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됨을 시사

-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철저히 입각하고 있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이 3년 연속 1,2,3위를 차지하고 금융개혁 추진 등으로 새로운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있는 핀란드, 노르웨이의 순위가 그 다음을 차지하는 사실※ 이 이를 반영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

IMD의 1997년 세계경쟁력 평가

	점수	순위						점수	순위				
		1997	1996	1995	1994	1993			1997	1996	1995	1994	1993
미국	100.00	1	1	1	1	1	칠레	52.03	24	13	20	24	19
싱가포르	87.54	2	2	2	2	3	스페인	48.75	25	29	28	27	30
홍콩	74.62	3	3	3	4	4	이스라엘	48.01	26	24	24	-	-
핀란드	70.80	4	15	18	19	25	중국	43.93	27	26	31	34	-
노르웨이	70.61	5	6	10	12	21	아르헨티나	42.19	28	32	30	33	-
네덜란드	70.29	6	7	8	8	8	태국	40.70	29	30	27	26	26
스위스	69.80	7	9	5	5	7	한국	40.48	30	27	26	32	28
덴마크	68.75	8	5	7	7	6	필리핀	38.41	31	31	36	37	35
일본	68.71	9	4	4	3	2	포르투갈	35.12	32	36	32	30	32
캐나다	67.76	10	12	13	20	17	브라질	35.04	33	37	38	43	44
영국	67.26	11	19	15	14	16	이탈리아	34.67	34	28	29	28	27
룩셈부르크	66.40	12	8	-	-	-	체코공화국	34.51	35	34	39	39	-
뉴질랜드	66.17	13	11	9	10	18	헝가리	34.09	36	39	41	41	39
독일	64.45	14	10	6	6	5	그리스	33.14	37	40	40	40	41
아일랜드	63.29	15	22	22	21	23	터어키	32.78	38	35	35	31	34
스웨덴	59.56	16	14	12	9	9	인도네시아	28.82	39	41	34	36	38
말레이시아	58.87	17	23	23	18	14	멕시코	28.44	40	42	42	29	33
호주	58.59	18	21	16	16	20	인도	23.80	41	38	37	38	42
프랑스	58.37	19	20	19	13	15	콜롬비아	21.41	42	33	33	35	-
오스트리아	57.63	20	16	11	11	13	폴란드	19.46	43	43	45	45	-
아이슬란드	55.20	21	25	25	-	-	남아프리카공화국	19.02	44	44	43	42	43
벨기에	54.16	22	17	21	17	12	베네수엘라	17.71	45	45	44	44	40
대만	54.14	23	18	14	22	11	러시아	5.00	46	46	46	46	-